

현대차, 이네오스와 글로벌 수소생태계 조기구현 ‘한뜻’

통합 수소 밸류체인 구축 도모
‘그레나디어’에 현대차 연료전지
유럽 내 수소경제 확산에 협력

현대자동차가 수소 생태계를 한층 더 확대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영국 글로벌 종합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과 업무 협약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는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에 비롯해 수소전기차 개발과 연료전지시스템 활용 등 통합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및 사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MOU 행사에는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사장과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 전무, 피터 윌리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사장 (왼쪽)과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 모습. /현대자동차

엄스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더 헤일만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대표이사 등 양사 핵심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이네오스는 석유화학과 특수화학, 석유제품 생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 화학기업이다. 현재 연간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글로벌 수소사회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시너지를 발휘할 협력 분야를 모색해왔으며 이번엔 손을 잡게됐다.

두 기업은 이번 협약으로 이네오스 오토모티브가 개발 중인 SUV ‘그레나디어’에 현대차의 연료전지시스템을 탑

재하게 된다. 현대차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미 넥쏘와 엑시언트, 일렉시티 등에 적용돼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 내 수소경제 확산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회사 핵심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해 즉각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네오스는 자회사 이노빈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과 공급 및 저장, 현대차는 연료전지시스템 공급을 담당한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으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포부다. 특히 이번 협력을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수소사회로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대하며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연료전지시스템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

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전무)은 “이네오스와 같은 전통적 화학기업이 그린수소 생산, 수소전기차 개발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로의 진입을 모색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 같은 이네오스의 노력에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를 선도하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더해져 최상의 시너지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터 윌리엄스 이네오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협약은 현대차와 이네오스 양사 모두에게 수소경제 가속화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양사가 보유한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미세먼지 많으니 공청기 켜드릴게요”

LG 씽큐로 만드는 ‘스마트 라이프’

환경 정보로 고객 맞춤 정보 제공
제품 작동상태 분석해 사용가이드
이상 감지시 출장서비스 예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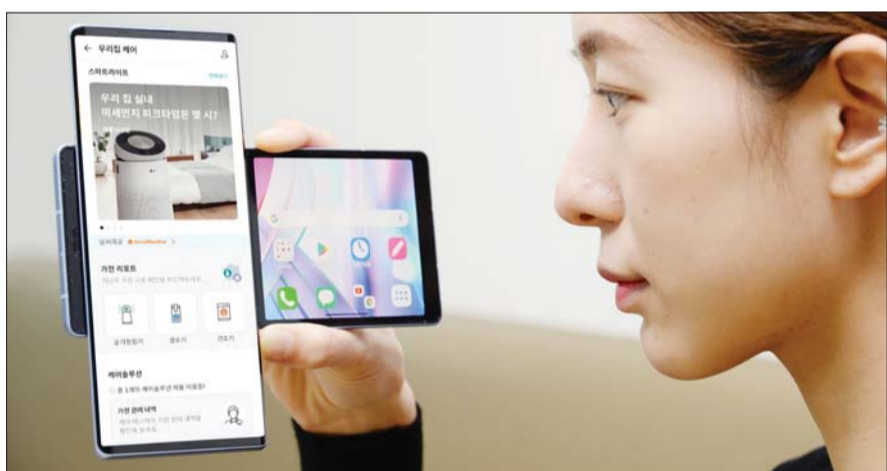
LG 씽큐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씽큐앱에 케어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어 서비스는 제품 사용 이력과 미세먼지 등 환경 정보로 고객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을 분석해 공기정정기를 켜주거나 겨울철 건조기로 이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메뉴는 ▲스마트라이프 ▲가전리포트 ▲케어솔루션 ▲캠페인 등 4가지로 구성된다. 각각 맞춤형 정보와 사용 패턴 분석, 케어솔루션 관리 이력과 공익적 효과 소개 등 역할을 한다.

또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의



LG 씽큐앱. /LG전자

작동상태를 분석하고 고객에게 사용 가이드를 알려주는 LG 씽큐 앱의 ‘최적 사용 가이드’ 기능도 강화됐다. 세탁기 세제를 정량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세제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냉장고 내부 온도가 이상이 감지되면 고객이 출장 서비스를 간편하게 예

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이다.

아울러 ▲제품 제어와 관리 ▲챗봇을 통한 서비스 상담 및 예약 ▲부품이나 소모품 구입 등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제품수명주기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기능도 있다.

/김재용 기자

어느 위치에서도 선명... ‘LG 시네빔 4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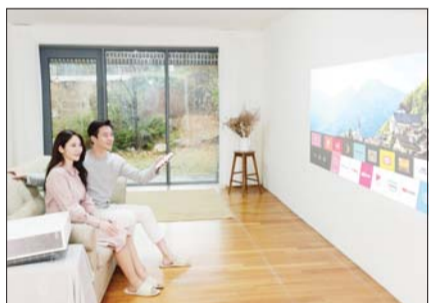
화면 크기 최대 300인치

시네빔 레이저 4K를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시네빔 4K 레이저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네빔 4K 레이저 신제품은 프로젝터를 어느 위치에 설치해도 원하는 모양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트리플 화면 조정’ 기능으로 ▲렌즈 방향 상·하·좌·우 조정 ▲최대 1.6배 화면 확대 ▲화면 테두리 12개 지점에서 화면을 늘리고 줄이는 기능 등을 탑재했다.

해상도는 4K(3,840x2,160) UHD에 20만 대 1명암비를 지원한다. 2700안시 루멘 밝기에 디지털영화협회 표준색 영역 DCI-P3를 97% 충족해 선명한 색상을 구현했다. 화면 크기는 40인치에서 최대 300인치다. HDR10을 프레임별로 최적화하는 다이나믹 톤 맵핑 기능으로 입체감과 선명성도 높였다.

다양한 편의 기능도 갖췄다. HDMI 2.1 포트와 애플 에어플레이 2 등 화면



LG전자 시네빔 레이저 4K /LG전자

공유와 함께 와이사(WiSA), 블루투스 등 다양한 무선 연결 기능도 지원한다.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웹OS로 유튜브, 왓챠, 웨이브 등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다.

LG전자는 연내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디자인 가구 브랜드 두달의 프로젝트 전용 테이블, 왓챠 6개월 이용권 등을 무상 증정한다. 선착순 구매 고객 30명에게는 기본 구매 혜택에 더해 갤러리 디자인 LG 사운드 바도 추가 증정한다. 신제품의 출하가는 379만 원이다.

/김재용 기자

“시스템반도체, 디지털 대전환 핵심분야”

박영선 장관 “사업화 등 적극 지원”
암 반도체 설계자산 활용기업 간담회

국내 스타트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 기업’ 중 하나인 영국의 ARM(암)으로부터 반도체 설계 지원을 통해 성과를 서서히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린트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중앙처리장치(CPU)용 시스템반도체를, 메타씨엔아이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를 각각 개발하면서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강남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파두에서 ‘암(ARM) 반도체 설계자산 활용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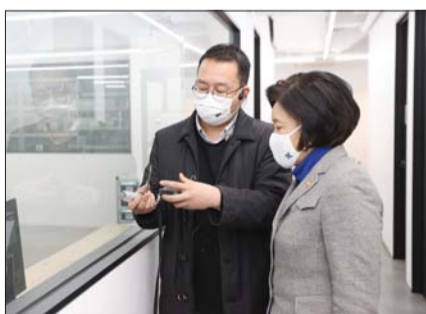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시스템반도체는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며 “기업 발굴부터 제품 설계, 시장 진출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민간, 학계가 연결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정책자금 확대, 인력양성 등 앞으로도 중기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RM은 지난 4월 중기부, 서울대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 10개사에 설계 패키지 지원, 교육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파두도 ARM으로부터 지원받은 곳 중 하나다. 파두 외에도 모빌린트, 퓨리오사에이아이, 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서울 파두에서 파두 남이현 공동대표로부터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부

타씨엔아이, 답엑스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외에 코아시아(디자인 하우스), 수요기업인 LG디스플레이와 현대오트론, 그리고 서울대·카이스트 관계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여 스타트업들은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며 중기부에 자금지원 확대,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해외 판로 개척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해운선사-화주간 상생협력 촉진

CJ대한통운이 해운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 기업으로 대상으로 선정하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았다. CJ대한통운은 해운수출물로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선화주’란 해운선사와 이들에게 화물의 운송을 맡기는 화주기업인 국제물류기업 또는 수출입기업을 뜻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국적 해운선사와 화주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조성을 유도하고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CJ대한통운은 인증평가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엄정한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을 수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15개 국적선사 모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힘써왔다. 회사 측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선사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노선별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